

ChungNam Report+



국가 위해 헌신·희생자 기리는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의 당위성

김 양 중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yj0509@cni.re.kr

주요 내용

충남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현황

- 전국적으로 기 조성된 6개의 호국원과 조성 예정지 2곳까지 포함하면 충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
- 충남 내 안장 대상 유공자의 예우와 안장 공간 부족 문제 발생
 - 충남 지역의 안장 대상 유공자는 '25년 2월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8,716명, 전상·공상 군경 4,094명, 무공수훈자 397명, 장기복무 제대 군인 5,535명 등 총 23,440명에 달하며 2025년부터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

충남 국립호국원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안장 대상 유공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 지역 보훈대상자들은 멀리 타지역 호국원에 안장해야 할 상황
- 안장수요 분석 결과, 충남에는 충분한 안장수요가 있으며, 보훈대상자 설문에서도 충남 호국원의 설치에 매우 시급하다는 분석
 - 충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군인,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가까운 안식처가 필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은 필수

충남 국립호국원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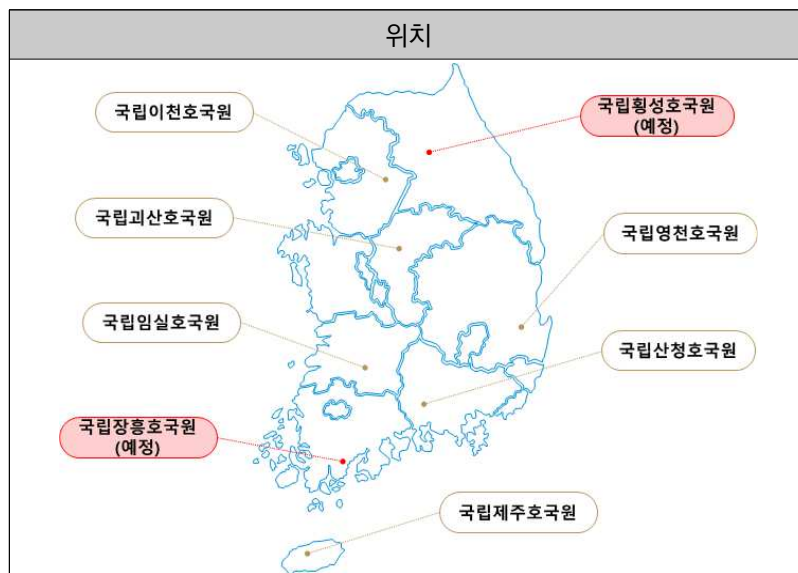
- 충남 지역에 호국원을 설치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와 존엄한 안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충남 국립호국원은 유가족들이 정서적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자,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애국심이 더욱 강화될 것임

국립호국원 현황 및 필요성

가. 국립호국원 현황

-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호국원은 6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2곳이 조성될 예정
 - ①경북 영천, ②전북 임실, ③경기 이천, ④경남 산청, ⑤충북 괴산, ⑥제주시예 기조성
 - 강원 횡성(2028년 11월)과 전남 장흥(2029년 11월)에도 추가 조성 예정

| 국립호국원 현황 |



자료: 2025년 2월 기준 기본현황(국가보훈부)

나.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의 필요성

- 강원과 전남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충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됨
 - 충남 지역 유공자들이 인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호국원으로 이주해 안장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 활동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충남은 호국보훈의 상징적 인물과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국립호국원이 부재하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

충남 보훈대상 현황 및 수요

가. 충남 보훈대상자 수

- 충남의 보훈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 충남 지역의 안장 대상 유공자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8,716명, 전상·공상 군경 4,094명, 무공수훈자 397명, 장기복무 제대 군인 5,535명 등 총 23,440명에 달함
 - 더불어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호국원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나. 충남 보훈대상자 비중

- 충남 보훈대상자 비중은 4.29%로 전남, 전북, 충북, 제주보다 보훈대상자 비중이 높음
 - 충남이 세종의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충남은 도 지역 중 경기, 경남, 경북 다음으로 대상자가 많음
 - 충남 지역 수요 **28,359명(5.19%)** = 충남 23,440명(4.29%) + 세종 4,919명(0.90%)

| 지역별 호훈대상 비중 (2025년 2월 기준) |

(단위: 명, %)

지역	대상자	비중	지역	대상자	비중
경기	134,249	(24.59)	전남	22,274	(4.08)
서울	88,272	(16.17)	전북	19,881	(3.64)
부산	38,492	(7.05)	충북	17,181	(3.15)
경남	37,395	(6.85)	대전	16,935	(3.10)
경북	31,261	(5.73)	광주	15,982	(2.93)
인천	27,650	(5.06)	울산	8,538	(1.56)
강원	27,482	(5.03)	제주	6,148	(1.13)
대구	25,816	(4.73)	세종	4,919	(0.90)
충남	23,440	(4.29)	주소불명	10	(0.00)

자료: 2025년 2월 기준 기본현황(국가보훈부)

다. 충남 보훈대상자 안장수요

| 지역별 안장수급 분석결과(누적치) |

(단위: 기)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35	2040	2045
수도권	-100,596	-112,612	-122,263	-130,456	-164,853	-193,597	-218,112	-239,133
강원권	-9,820	-10,786	-11,562	-12,220	-14,984	-17,294	-19,262	-20,949
충북권	81,200	79,033	77,341	75,939	70,175	65,460	61,599	58,458
충남권	1,095	-1,154	-3,078	-4,796	-12,313	-18,860	-24,839	-30,381
전북권	3,387	2,071	1,029	155	-3,477	-6,483	-8,998	-11,103
전남권	-16,062	-17,643	-18,912	-19,989	-24,508	-28,286	-31,505	-34,264
경북권	-13,401	-16,275	-18,571	-20,510	-28,619	-35,369	-41,082	-45,935
경남권	10,148	6,387	3,379	834	-9,819	-18,696	-26,229	-32,644
제주권	6,635	6,287	6,008	5,771	4,779	3,950	3,246	2,644
합계	-37,414	-64,692	-86,629	-105,272	-183,619	-249,175	-305,182	-353,307

자료: 국립묘지 안장수요 및 안장 추계 분석, 국가보훈부(2016)

- 국가보훈부의 지역별 안장수급 분석에 따르면 충남권(대전·세종·충남)은 2023년부터 안장 능력이 부족하여 2045년까지 30,381기의 안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국립호국원 조성의 당위성과 기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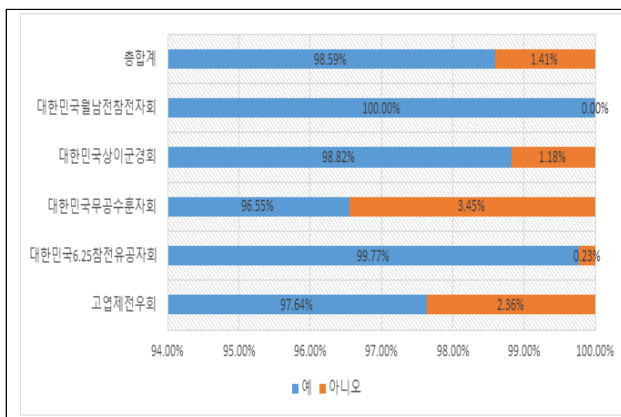
가. 설문 개요

■ 조사대상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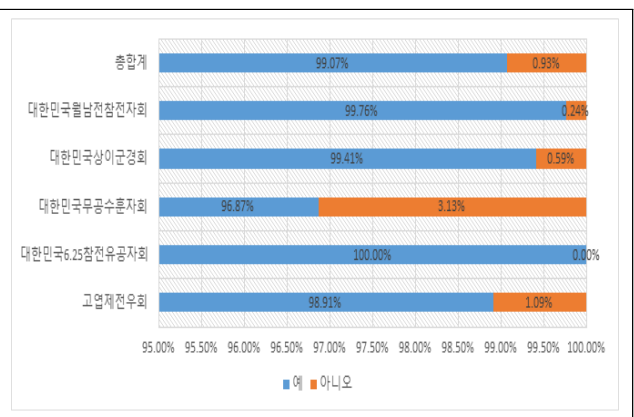
- 충남 보훈단체 주요 5개 단체(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조사
- 2024년 9월 5일~9월 30일까지 총 2,054명이 응답

나. 설문분석 주요내용

| 도내 안장 여부 |



|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필요성 |



■ 충남도내 안장 여부

■ 전체 응답자 중 98.59%는 '충남의 보훈대상자가 충남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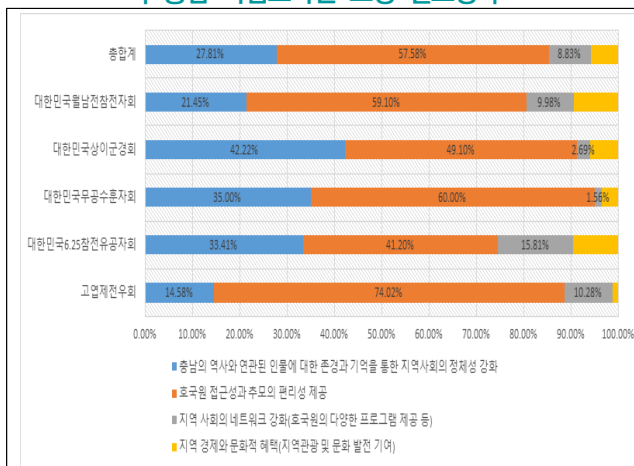
- 보훈대상자의 지역 안장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정체성과 애국심, 그리고 보훈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감대 형성이 매우 견고함을 의미함

■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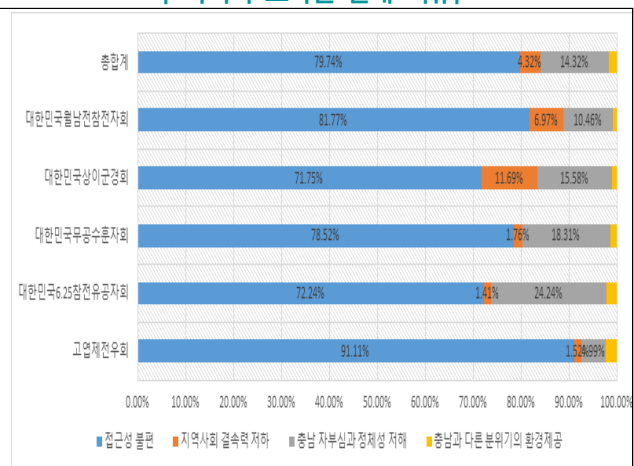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99.07%가 '충남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응답

- 충남 지역에서 국립호국원 조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국립호국원을 단순히 국가적 상징성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

|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필요성 |



| 타지역 호국원 반대 이유 |



■ 충남 호국원 조성 필요성

- 응답자의 57.58%가 '호국원 접근성'과 '추모의 편리성'으로, 27.81%가 '충남의 역사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강화'로 응답
 - 충남이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시급

■ 타 지역 호국원 이용 반대 이유

- 응답자의 대다수인 79.74%가 타 지역 호국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접근성의 불편함'을 들었고, 응답자의 14.32%는 '충남의 자부심과 정체성 저해'로 대답
 - 이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호국원이 위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줌

다. 충남 국립호국원 기본구상(안)

■ 타 지역 호국원 시설현황

구 분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시
면 적	39만㎡	45만㎡	29만㎡	57만㎡	89만㎡	27만㎡
사업기간	'97.4~'00.10	'98.8~'01.11	'02.1~'07.12	'04.2~'14.12	'12.9~'19.10	'12.9~'21.11
사업비(억원)	220	178	383	537	648	500
안장 기수	53,531	35,068	50,002	10,008	22,526	2,687
잔여 기수	142	1,844	만장	792	2,474	7,313

자료: 충남도청 자체 취합

- 각 호국원의 면적은 제주시(27만㎡)를 제외하고 모두 30만㎡ 이상임. 사업비는 충북 괴산(648억 원)과 경남 산청(537억 원)이 가장 높았음
- 가장 많은 안장 기수를 보유한 곳은 경북 영천(53,531기)과 경기 이천(50,002기)임

■ 충남 국립호국원 건립 제안

- 사업 규모 : 약40만㎡ (보안시설 1.5만기 및 부대시설)
 - ※ 추후 안장수요에 따른 보안시설 확장계획 수립 필요
- 사업 기간 : 6~7년
- 사업 예산 : 495억 원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설비, 감리비 등 전액 국비)

라. 시사점 및 정책 제안

-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 지역에 건립되어야 할 충남 국립호국원은 충남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국가 시설로써, 미래 세대에게 애국심을 전하는 상징적인 장소임
 - 충남 국립호국원은 보안시설과 부대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
 - 충남의 상징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디자인 계획은 물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부터 설계, 건설, 감리까지 철저한 관리하에 진행해야 함
 - 충남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추모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충남의 역사적 유산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충남 국립호국원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미래 후손에 큰 가치를 남겨줄 것임

참고문헌

- 국립묘지 안장 수요 및 안장 추계 분석, 국가보훈부(2016)